

동남아 바이오 로드쇼 13-17일 개최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최하고 한국바이오벤처협회(회장 박종세)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함께 주관하는 <동남아 바이오 로드쇼>가 11월13일부터 11월17일까지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된다.

바이오벤처협회에 따르면, 동남아는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나 후발주자로 바이오기술은 전통적, 재래적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바이오벤처협회는 싱가포르, 말레이, 홍콩 등 동남아 3개 지역을 바이오 로드쇼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교보증권과 JS Global 등 협력기업의 지원을 받아 국내 바이오기업의 기술 및 기업 IR을 통해 해외진출을 위한 파트너링, 기술이전, 투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로드쇼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에는 넥스젠, 렉스진바이오텍, 리젠바이오텍, 마이크로사이언스테크, 바이오니아, 바이오트론, 헨슨바이오텍, 히스토스텝 등 국내 8개 바이오벤처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한국바이오벤처협회 박종세 회장은 싱가포르바이오협회 Steven Fang 회장과 양국 바이오산업의 협조와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한 싱가포르 현지의 바이오전문지인 BioSpectrum은 한국의 바이오산업 현황과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정책, 국내 바이오클러스터 및 지방자치단체의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노력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국바이오벤처협회를 비롯한 로드쇼 참여기업들은 14일 싱가포르의 바이오폴리스 지역을 방문해 싱가포르 바이오산업 시찰과 관

심기업과의 미팅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15일부터는 말레이 공식일정이 2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17일 마지막 로드쇼 대상지역인 홍콩을 방문한다.

<화학저널 2006/11/14>